

## 금요 양성 2025년 2월 21일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2022년 10월 국가형제회 총회에서,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2022-2025년의 우선 순위 과제를 성소, 소통, 관계로 정했다. 몇주간 금요 양성은 이 우선 순위 과제들을 하나씩 살펴 보고 있다.

Part 3 재속프란치스코회내에서의 관계 3부

### 우주적 친족관계로서의 형제회

국가양성위원회 Francine Gikow, OFS 가 이 양성을 준비했다

형제회라고 표현되는 관계는 재속프란치스코 카리스마를 사는 삶의 기초이며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맺게되는 선교의 방법이다. 재속프란치스코회안에서의 관계를 연재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이미 살펴 보았다.

- 거룩한 삼위일체의 각 위격사이의 사랑은 형제회 삶의 모델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.
- 프란시스는 우리 모두가 같은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, 딸이고, 그래서 우리 모두가, 친족 관계안에서, 또 형제회안에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된다고 이해하셨다.
- 우리 단위 형제회는 사랑의 학교로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. 우리는 형제회안의 형제 자매들과, 우리가 교류하는 다른 사람들과, 우리가 사역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, 상급 형제회와 다른 프란치스코 가족인 수도 형제회들과, 또 전 세상과도 “형제간”이 된다.

그러나, 프란치스코의 “형제간”의 개념은 더욱 더 확장되어 모든 피조물 - 생물과 무생물- 을 다 포함하는데, 이것을 “우주적인 친족관계”라고 칭한다. 우리 회칙 18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:

**“이밖에도 회원은 “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,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, 프란치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.”**

프란시스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안에 내재되어 계신 것 - 우리 회칙에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창조하신 **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**- 을 보았다.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같은 아버지의 의해 창조되었으므로, 모든 피조물과 형제, 자매로 일치되어 있고, 그러므로 형제적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보아야 한다.

이것을 우리 회헌은 더욱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(18조 4항)

**“환경론자의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, 회원은 오염과 자연 파괴를 막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 및 환경 조건을 위한 노력에 공동 협력하면서 창조 질서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”**

“피조물의 찬가”에서 프란시스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태양 형제와 달 자매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, 영광, 영예와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다. 찬가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“것” 즉 친족관계에

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. 그 존경심을 지속하도록 우리는 서약을 할 때에 “하느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” (피조물과의 관계안에서도) “좀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다. (회칙 14조)

이것을 요약해서, 우리의 사랑하는 이전의 국가형제회장, Tom Bello, OFS 는 형제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.

**“형제회는 살아있는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일치하고 화목을 이루라는 부르심이다.**

**형제회는 사랑이신 같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, 식물과 위성들과 일치하고 화목을 이루라는 부르심이다.**

**형제회는 성부, 성자, 성령이신 사랑의 하느님께로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이다.” ((FUN: 형제회, p.7)**

#### 성찰/묵상 질문

- 회헌 18조 “정의롭고 형제적인 사회를 위하여” 읽고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 보시오.
- 이 조항에서 당신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? 당신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입니까?
- 형제적 관계에 대한 기술중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거나 영적 저널에 써 보시오
- 이 조항으로 얻게 된 아이디어들로 기도를 해 보고 그 아이디어들을 당신의 삶이나 형제회 삶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오.